

<h1 style="text-align: center;">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h1> <h2 style="text-align: center;">개인활동 결과 보고서</h2>				
신청자	이 름	차 은 주	학 번	10527
			핸드폰	
지원분야	<input type="checkbox"/> 인문분야 <input type="checkbox"/> 자연분야 <input type="checkbox"/> 예체능분야 <input type="checkbox"/> 인성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과학)			
연수기간	2022. 7. 9		장소	희리산, 혜향
활동 내용 및 결과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p>자연휴양림</p> <p>서천에 위치한 희리산을 대크었다. 처음 가본 곳이여서 바람이 솔솔 부는 것과 새소리가 너무 좋았다. 차와 매연가스에서 벗어나</p> </div>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p>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니 힐링이 되었다. 도착한 후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p> </div>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p>고기를 먹었다 고기를 먹으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시냇물이 흐르고 수박이 달가져 있었고 가재가 헤엄치고 있었다. 밥을 먹고난 후 숲 해설 선생님께서 나무와 희리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역사, 나비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처음에는</p> </div> </div> <p>끼리명곡 나비를 만났다. 이름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러 나무들 줄에서 소나무가 기억이 난다. 공을과 자승으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솔방울과 나뭇가지로 체험도 하였다.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였다. 숲 해설 선생님께서도 정말 재치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훨씬 쉽고 평소 이런 기회를 못 누린다니 1분이초가 아쉬웠다. 도심에서는 알지 못하는 생태계의 흐름과 먹이사슬을 알 수 있었다. 문득코 지나쳤던 새소리들과 매미소리가 매 즐겁고 생각하였는데 다시 들어보니 우아한 노랫소리로 들렸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 나뭇가지와 솔방울로 꾸며 만든다 더 재밌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태계안의 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고, 더하여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p>			
소감 및 느낀 점	<p>도심에서는 알지 못하는 생태계의 흐름과 먹이사슬을 알 수 있었다. 문득코 지나쳤던 새소리들과 매미소리가 매 즐겁고 생각하였는데 다시 들어보니 우아한 노랫소리로 들렸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 나뭇가지와 솔방울로 꾸며 만든다 더 재밌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태계안의 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고, 더하여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p>			

다음으로 군산에 있는 예향이라는 곳에 갔다. 향수 만들기를 하였다.
예향에 들어갈 때 강한 향수냄새가 날까봐 긴장하면서 들어갔다.
다행이도 강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고 은은한 꽃 향기가 났다.
향수를 생각하면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좀 오래걸릴
거라고 음료를 건네주셨다. 내 책상 앞에는 스포이트가 담긴
병과 여러 향이 담긴 병들과 향을 맡을 수 있는 종이들
이 있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용어와 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기본적으로 퍼플이라고 불리며, 제일 처음 맡
았을 때 강하게 느끼는 top 향과 그 다음으로 조금 은은하게
남는 middle 향과 마지막으로 은은하게 남게 되는 side
향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다음 지속력에 대해 알려주셨다.
1시간부터 10일까지 있겠는데 우리는 보통 향수에서 쓰는
1시간 정도의 5%로 한다고 얘기하며 주셨다. 그 외에도
여러 향들이 느껴지는 효과와 관향에 대하여 말해주시고
나서 체험을 시작하였다. 향수를 만들고 배합해가며 앞서 내가
좋아하는 향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내
취향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향수에 특정쪽으로 생각했던 편
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었고 직접 해보니 느낌이 많았다.

향수는 오직 화학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체험해보니 생각이 바뀌었고, 천연 향수라서 그런지 더 좋았다.
향수를 만드는 것이 꽤 비용이 많이 들어 실패할까 봐 걱정했는데, 해
보니 내가 맡았던 냄새가 내가 좋아하는 향이 섞여있던 것이었구나
생각했다. 화학약품이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배합해보니 머리가 시원
해지고 향긋했다. 화학약품을 배합하여 이런 향이 나는 것이 신기했고
내가 생각한 향을 좋아했고, 나뭇 향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